



1·2분위의 식비 지출 증가는 물가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에 따른 소득·소비여력 확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8.30. 연합뉴스는 “저소득층에 더 가혹한 물가 상승... 식비부담 더 크게 늘었다” 제하 기사에서
 - “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커진 것은 먹거리 물가가 올랐지만, 필수적인 소비여서 소비량을 크게 줄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가계동향조사에서 분위별 소비지출 항목과 지출 규모는 가구소득, 가구 특성(가구원수 등), 물가, 계절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.
 - 26.2분기 1, 2분위의 식비 지출 증가는 먹거리 물가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에 따른 소득·소비여력 확대 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, 이를 단순히 물가 부담 확대만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가 필요합니다.

【 ① 식비 지출 증가 관련 】

- 금년 2분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소득계층별 차등지급 등 정책지원 효과가 더해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
 - * 26.2/4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1분위) 7.5 (2) 5.9 (3) 5.5 (4) 4.0 (5) 3.8
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1분위) 7.5 (2) 6.2 (3) 5.7 (4) 5.4 (5) 4.3
 - 금년 2분기 식비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, 1분위의 식료품·비주류음료 지출은 전년동기비 1.0% 증가한 반면, 식사비(외식비)는 15.1% 증가하였고, 2분위는 각각 6.9% 증가하였습니다.
 - * 26.2/4 식료품·비주류음료 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1분위) 1.0 (2) 6.9 (3) △0.3 (4) 5.9 (5) 0.9
 식사비 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1분위) 15.1 (2) 6.9 (3) 4.1 (4) 0.8 (5) 2.5

○ 이러한 식비 지출 증가에는 식료품 구입비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저소득층 외식 지출 증가 영향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.

- 식사비 금액은 하위소득분위일수록 절대금액이 적으나, 금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이 1분위, 2분위 순으로 가장 컸습니다.

* 26.2/4 식사비 지출액(천원): (1분위) 183.9 (2) 312.2 (3) 450.2 (4) 582.8 (5) 755.4

식사비 지출 증감액(전년동기비, 천원): (1분위) 24.2 (2) 20.1 (3) 17.8 (4) 4.4 (5) 18.5

-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2025년 3분기에도 전년동기비 식료품·비주류음료 지출 증가율은 1분위 1.0%, 2분위 1.0%인 반면, 식사비 지출 증가율은 1분위 9.1%, 2분위 4.9%를 기록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금년 2분기 소비자물가의 경우, 쌀,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으나,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농축수산물 1.6%, 가공식품 0.9% 상승하는 등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고, 외식서비스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.

* 분기별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총지수) $^{25.3/4}2.0 \rightarrow ^{4/4}2.4 \rightarrow ^{26.1/4}2.1 \rightarrow ^{2/4}3.0$

(농축수산물) $^{25.3/4}2.9 \rightarrow ^{4/4}4.2 \rightarrow ^{26.1/4}1.2 \rightarrow ^{2/4}1.6$

(가공식품) $^{25.3/4}4.2 \rightarrow ^{4/4}3.1 \rightarrow ^{26.1/4}2.2 \rightarrow ^{2/4}0.9$

(외식서비스) $^{25.3/4}3.2 \rightarrow ^{4/4}2.9 \rightarrow ^{26.1/4}2.9 \rightarrow ^{2/4}2.6$

○ 따라서 식비 지출 증가에는 가격요인뿐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른 구매량, 품목구성 변화 등의 영향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【 ② 전체 가계지출 중 식비 비중 관련 】

□ 1, 2분위의 가계지출 중 식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, 최근 추세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증가한 수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.

* 가계지출 대비 식비 비중(%): (1분위) $^{25.2/4}30.1 \rightarrow ^{3/4}31.3 \rightarrow ^{4/4}31.2 \rightarrow ^{26.1/4}28.0 \rightarrow ^{2/4}30.3$

(2분위) $^{25.2/4}26.3 \rightarrow ^{3/4}27.3 \rightarrow ^{4/4}27.6 \rightarrow ^{26.1/4}25.6 \rightarrow ^{2/4}27.2$

○ 아울러,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수준에 따른 일반적인 소비구조의 특성입니다.

□ 따라서, 금년 2분기 저소득층의 식비 지출 및 비중 변화를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,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여력 확대, 먹거리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앞으로도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고, 농축수 할인지원, 수입·공급 확대 등 먹거리 가격안정 노력을 통해 민생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정미현 (044-215-2850)
		담당자	사무관	김나윤 (kny218@korea.kr)
담당 부서	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	책임자	과 장	박순옥 (042-481-2359)
		담당자	사무관	강혜림 (042-481-2213)